



한국 뉴리더 방일단 초청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강의 청강, 기업 및 대학 방문, 주제에 맞춘 각종 시찰 및 교류 등을 통해 일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향후 일한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등 총 30명 (인솔자 포함)

【방문지】 도쿄도,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가가와현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1월 24일 (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들의 대외 발신

■ 초청 프로그램:

2월 4일 (화) 하네다국제공항으로 입국

【예방·강의】 외무성 ‘최근의 한일 관계’, 도착시 오리엔테이션

2월 5일 (수) 【기업방문】 주식회사 미즈호은행,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

【대학방문】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캠퍼스, 도쿄대학 혼고캠퍼스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2월 6일 (목) 【예방】 주일한국대사관, 【시찰】 영빈관 아카사카 이궁

【예방】 참의원의원 (마쓰카와 루이 의원), 【시찰】 국회의사당

2월 7일 (금) 히로시마현으로 이동

【예방·강의】 히로시마현청 ‘국제교류원이 본 히로시마의 매력’

【강의】 피폭체험 강연

2월 8일 (토) 【시찰】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시찰】 평화기념공원 (원폭동, 한국인원폭희생자 위령비 등)

【강의】 흥스태이 지역의 개요와 매력에 대해, 【교류】 흥스태이 대면식

2월 9일 (일) 종일 흥스태이

2월 10일 (월) 흥스태이 해산식, 【시찰】 도모노우라 (후쿠젠지 다이초로), 오카야마현으로 이동

【시찰】 세토우치시 우시마도초 (우시마도 해유문화관, 혼렌지 등)

2월 11일 (화) 가가와현으로 이동

【시찰】 나오시마 (혼무라지구, 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 베넷세하우스뮤지엄)

오카야마현으로 이동, 성과보고회

2월 12일 (수) 오카야마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5년 2월 4일 【예방】 외무성



2025년 2월 5일 【기업방문】 주식회사 미즈호은행



2025년 2월 5일 【기업방문】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



2025년 2월 5일 【대학방문】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캠퍼스 ‘글로벌 리스크와 일한 협력’



2025년 2월 5일 【대학방문】 도쿄대학 혼고캠퍼스



2025년 2월 6일 【예방】 주일한국대사관 ‘한일 협력의 중요성’



2025년 2월 6일 【예방】 참의원의원 (마쓰카와 루이 의원)



2025년 2월 7일 【예방·강의】 히로시마현청 ‘국제교류원이 본 히로시마의 매력’

	
<p>2025년 2월 8일 【시찰】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p>	<p>2025년 2월 10일 【시찰】 도모노우라 (후쿠젠지 다이초로)</p>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대학생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만나기 어려운 대학과 교수님, 각종 시설 (국회, 외무성) 등의 시찰은 결코 흔치 않은 기회였고, 한일 외교 개선을 위한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 한국 대학생

홈스테이와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시찰이 특히 인상에 남습니다. 한일관계와 역사적 가치, 그리고 관련 장소를 시찰하고 현지 분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한국 대학생

홈스테이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사는 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깊이 있게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홈스테이를 통해 호스트 가족들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며 ‘일본과 한국은 차이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곳에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한국 대학생

나오시마 등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방문할 기회가 적거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일본 측 감상(발췌)

◆ 히로시마현청

히로시마현의 한국인 국제교류원이 ‘히로시마의 숨겨진 보물’이라는 주제로 풍부한 자연과 식문화, 전통 예능 등 히로시마현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일단 분들은 히로시마현과 한국과의 관계, 현 내의 관광지과 산업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청을 방문하신 분들께서 앞으로도 여러 번 히로시마를 찾아 주시면서, 이번에 맛보지 못한 히로시마의 매력을 느끼고, 앞으로 일한 우호의 가교로서 활약하시기

를 바랍니다.

◆ **주식회사 미즈호은행**

저희 은행의 해외 비즈니스 전반과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받는 등 당행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일한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저희 은행도 일한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국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

당사의 한국을 포함한 그룹 사업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주류 시장에 대한 대책 등 본질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통해 일본계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게이오기주쿠대학 니시노 준야 교수**

한국 유수의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을 미타캠퍼스에 초청하여 일한관계 전반 및 어려운 국제정세 하에서의 일한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수준 높은 질문을 많이 받았으며, 일한 안보협력의 과제, 일한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일한관계의 전망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사하시 료 교수**

처음 20분 정도의 강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탄생 등을 계기로 향후 국제정치의 향방,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질의응답에 할애했는데, 미국 외교와 한미일 관계, 경제안전보장, 그리고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해 뛰어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고학년뿐만 아니라 신입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 참가자 대외 발신(발취), 보도기사 등



♡ 9 Q 📍

님 의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카사카 신궁, 국회의사당, 주일한국대사관 등 전통적인 건물과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명소에 방문하면서 두 국가가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좋은 친구로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Is this truly that Yoshino, who parted with me in front of our house yesterday morning?"

히로시마 원폭 당시의 상황, 특히 피폭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보고 이러한 일이,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히로시마가 지향하는 전세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



2025년 2월 6일 (Instagram)

오늘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빈관 아카사카 이궁, 국회의사당, 주일한국대사관 등 전통 건축물과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명소를 방문하면서 양국이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좋은 친구로서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8일 (Blog)

히로시마가 피폭된 당시의 상황, 특히 피폭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물을 보고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히로시마가 그리는 전 세계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추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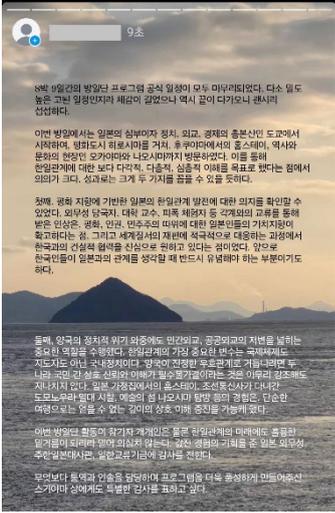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이 들었습니다 ㅠ.ㅠ

무뚝뚝하셨지만, 뒤에서 챙겨주셨던 오프상, 우리를 맡들처럼 챙겨주셨던 오키상, 너무 귀여웠던 치키짱까지

마지막에 버스에서 손을 흔들여주시고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땐 정말 눈물이 났다..🥹 일본에 또 갈 때 꼭 한국 오키시나 오차, 치키짱의 아이브 굿즈를 사들고 다시 만나고 싶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그리고 일본인의 입장이 나 생각이 궁금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어도 더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과 좋은 풍경을 가진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



9초

이번 8박 9일간의 방일단이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다소 밀도 높고 근바 일정이지만 제법이었으나 역시 끝이 다가오니 괜스레 아쉬워한다.

이번 방일단에서는 일본의 심부자라 정치, 외교, 경제의 중심부인 도쿄에서 시작하여, 방일도시 히로시마를 거쳐, 후쿠야마에서의 홀스테이, 역사와 문화의 현장인 오키야마와 나고야까지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보다 다각적, 다층적,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각나는 것들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평화 지향에 기반한 일본의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무성 장관이, 대학 교수,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받은 인상문, 문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인들의 가치지향성이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정세의 제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의 진정성 회복을 인식으로 확고고 있다는 점이었다. 양국인 한국인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양국의 정치정적 위기 와중에도 민간외교, 공공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제사회의 지지도가 아니 국내정치이다. 양국이 진정한 동호관계로 거듭나려면 두 나라는 국민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모든 교류 활동에도 지지 지니었다. 일본 가정집에서 일본 요리, 조선족 신사가기, 나고야 도모노우라원대 사찰, 에도시대 집 나고야시 탐방 등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이와 상호 이해 증진을 가능케 했다.

이번 방일단 활동이 참가자 개인으로 물론 한일관계의 미래에도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같은 경험의 기회를 준 일본 외무성 주관방일단사단, 방일외교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엇보다 동역과 인사를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소기이다 상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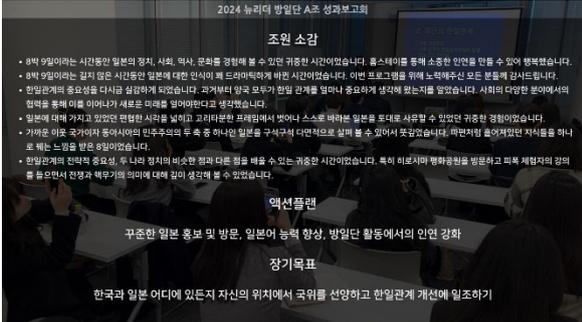
2025년 2월 10일 (Blog)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이 들었습니다. (중략)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과 일본인의 입장, 생각 등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어를 더 공부해서 언젠가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Instagram)

8박 9일간의 방일단이 끝났습니다. (중략) 양국이 진정한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번 홈스테이와 조선통신사 연구지 시찰 등의 경험은 여행에서 경험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상호 이해의 증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체 내용 기재)

 <p>2024 뉴리더 방일단 SNS 성과보고회</p> <p>조원 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방일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일본의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 이번 방일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준비와 연습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돌아보면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시각을 넓히고 고리타분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스스로 배워본 일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중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일본을 구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막연치않은 출어제일인 저사들을 하나 로 때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두 나라의 정치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피복 체험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전쟁과 핵무기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p>액션플랜</p> <p>꾸준한 일본 홍보 및 방문, 일본어 능력 향상, 방일단 활동에서의 인연 강화</p> <p>장기 목표</p> <p>한국과 일본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일조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 New Leader 방일단 E조 🇰🇷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01 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탐구하며 상호 이해를 넓힘 • 일본 의무성 단과자, 주요 대학 교수 등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의 풀담 및 토론을 통해 일본의 외교적 입장을 깊이 이해 •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의 일상 문화를 더불어 일본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체험 <p>→ 양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공외교, 민간외교의 중요성을 실감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핵심인 국민 간 신뢰 및 우호 증진의 중요성을 평소 체험</p> </div> <div style="width: 45%;"> <p>02 액션 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 교내 한일 교류 동아리 가입 (또는 직접 설립) • 한일 대학생 간 지속적인 교류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과제(기후변화, AI, 경제협력 등) 해결을 위한 대학생 주도 프로젝트 추진 </div> </div> <p>03 장기 목표</p> <p>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가 되어 상호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이득을 널리 전파</p>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일 교류가 갖는 의미를 실감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양국이 쌓아온 소중한 인연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방일단 참가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한일관계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나 SNS를 통해 방일 기록을 공유하고, 일본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 일본문화 관련 소규모 이벤트나 학내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여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하겠습니다. • 일본 방문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일본과의 협력 프로젝트 기획, 일본어능력시험 공부, 일본 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가를 실천하겠습니다.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탐구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 의무성, 대학 등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의 일상 생활과 문화, 일본인의 배려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양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지금, 공공외교와 민간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핵심인 양국 민간의 신뢰 및 우호증진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p>【액션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대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 학내의 한일 교류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직접 만들겠습니다. • 글로벌 과제(기후변화, AI, 경제협력 등) 해결을 위해 대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